

2019년 최고 예능인은?

[예능 연말결산] 예능 전문가 31인 대상 설문조사 박나래 1위 · 유재석 2위...장성규는 올해의 재발견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까지 론칭하면서 종합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문가 31인이 뽑은 '올해의 예능인'으로 선정됐다. 장성규는 '올해의 발견 혹은 재발견된 예능인'으로 뽑혔다.

뉴스1은 2019년 연말을 맞아 현직 방송 PD와 기획사, 제작사, 홍보사 등 예능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예능계를 빛낸 프로그램과 스타들을 조사했다. (복수 및 무응답 포함)

예능 전문가들이 뽑은 올해의 최고 예능인 부문에선 박나래가 13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뉴스1이 진행한 연말 설문에서 이어 이번에도 1위에 이름을 올린 박나래는 올 한 해 MBC '나 혼자 산다'를 필두로, MBC '구해줘!

흡즈' KBS 2TV '스탠드 업'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관계자는 "독보적인 본인만의 캐릭터로 출연하는 예능마다 돋보인다"라며 "최근 본인 이름을 건 프로그램도 론칭할 만큼 차기 떠오르는 MC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에서 과감하게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올해 가장 빛나고 독보적인 예능인"이라고 말했다.

유재석은 박나래와 3표차인 10표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중점에 두고 활동을 펼쳐온 유재석은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국민MC의 굳건함을 제대로 알렸다. 특히 '놀면 뭐

하니?'에서 얻은 트로트 가수 '유산술'이라는 '부캐'(부캐릭터)로 MBC 뿐만 아니라 KBS SBS 등 채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걸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SBS '골목식당' 맛남의 광장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로 맹활약한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이 5표를 받았다.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화제성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송가인 및 EBS 대세 캐릭터 팬수는 2표, 김희철 장도연 양세형 핑클 등은 각각 1표씩 받았다. 올 한

해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 받은 것과 관련, 한 관계자는 "예능 춘추 전국 시대"라며 "다양한 예능인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견' 혹은 '재발견'된 예능인으로는 장성규가 9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장성규는 프리 선언 후 스튜디오 톨루랄라의 웹예능 '워크맨'을 중심으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Mnet '퀵' KBS 2TV '술기로



박나래



유재석



장성규

양한 플랫폼에서 종합무진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프리 선언 이후부터 말 그대로 잠재력이 터졌다"라며 "빠른 예능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어필되고 있다"고 평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선남규 캐릭터로, 유튜브 인기까지 업고 방송에서 날개를 단 것 같다"라고 했다.

2위는 1표차인 7표를 받은 허재가 거머쥐었다. JTBC '몽쳐야 찬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한 허재는 이후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섭렵하며 활약을 펼쳤고, 과거 카리스마있던 농구선

수 및 감독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이미지로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유산술로 다시 태어난 유재석은 5표를 받아 올해의 예능인에 이어 재발견된 예능인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어 송가인이 4표, 건너블리(나은 건우 남매)가 2표, 팬수가 각각 2표를 받았다.

유재석을 올해의 재발견된 예능인으로 뽑은 한 관계자는 "유재석이 유산술로 재탄생하면서 유재석 자신을 또 다시 뛰어넘었다"라고 평했다.

2019년 최고 예능 프로그램은

'미스트롯' 당당 1위...최대 사건은 '프듀' 조작 파문



왼쪽부터 허유미, 박성연, 김나희, 두리, 숙행, 송가인, 김희진, 김소유, 정다경, 강예슬, 홍자, 정미애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에 휩싸이게 만든 '미스트롯'이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예능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은 12표를 받은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 (이하 '미스트롯')이다. '미스트롯'은 송가인 정다경 김나희 홍자 정미애 등의 걸출한 트로트 스타들을 배출

해내며 올 한해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 속으로 이끌었다. 특히 '미스트롯'은 지난 5월2일 마지막회에서 무려 16.6%(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TV CHOSUN 역대 예능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 중 한 명은 "트로트

라는 낯은 장르를 전국민적 관심 속으로 핫하게 다시 끌어 올렸다"라고 평했다. 다른 응답자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며 방송가의 기존 타겟 시청자 개념을 흔들리게 했다"라고 평가를 보냈다.

지난 7월 김태호 PD가 MBC '무한도전' 중영 이후 약 1년4개월 만에 론칭한 '놀면 뭐하니?'는 3표를 받았다. 스포츠계 살아 있는 전설들이 모여 조기축구에 도전하는 JTBC '몽쳐야 찬다'와 장성규의 '선남규' 캐릭터를 만들어낸 스튜디오 톨루랄라의 '워크맨'도 각각 3표를 받았다.

한 전문가는 "놀면 뭐하니?"를 선정한 이유로 "처음 릴레이카메라로 시작해 유산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 김태호 PD만의 연출력, 기획력, 창조력, 세계관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몽쳐야 찬다'를 뽑은 전문가는 "신선한 기획이 돋보였고 캐스팅이 신의 한 수였다"라며 "그들 안에서 캐릭터를 발견하고 케미를 발전시켜 나간 연출이 또 한 수"라고 밝혔다.

'워크맨'을 선정한 응답자는 "짧고 빠른 디지털 포맷 예능의 시대가 오고있음을 보여주었다"라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요

즘 제일 웃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평했다.

이외에 JTBC '캠핑클럽'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은 2표씩 받았으며, MBC '구해줘! 흡즈' SBS '골목식당' MBC '나 혼자 산다' 등은 1표씩 획득했다.

올해 더 주목 받았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물음에는 KBS 2TV '씨름의 희열'이 4표를 받으면서 1위에 올랐다. '씨름의 희열'은 화려한 기술과 스타드를 앞세운 태백, 금강급 씨름 선수들의 경량급 천하장사 대회 도전을 그린 예능프로그램으로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를 예능으로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다. 다만 지난 14일 방송까지 3%(닐슨코리아 제공/전국 가구 기준)의 다소 낮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한 응답자는 "씨름이 이렇게 재미있는 스포츠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더 잘 보면 좋겠다"라고 평했고, 다른 응답자는 "공익적인 좋은 소재를 가졌고, 눈길이 갈만한 예능적 요소도 갖춘 프로그램이다"라며 "시청률과 화제성이 아쉽다"라고 했다.

1인 토크쇼의 대기 가능성을 보여준 KBS 2TV '대화의 희열'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인소셜기부의 인식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은

MBC '같이 편딩'은 각각 2표를 획득했다. 이외에도 SBS '리틀 포레스트', tvN '플레이어', JTBC '체할! 사람의 현장 '딱나가요' 등이 1표씩을 받았다.

올해의 예능 트렌드를 묻는 질문에는 '트로트 예능의 대세'라는 응답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트로 콘셉트의 강세라는 응답이 5건으로 2위를, 리얼리티 예능의 여전한 강세라는 응답과 채널 경계의 붕괴 및 플랫폼 대통합이라는 응답이 각각 3건으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트로트 예능의 대세를 올해의 예능 트렌드로 꼽은 한 응답자는 "'미스트롯'과 '놀면 뭐하니?'의 유산술 등이 흥행하면서 당분간 트로트가 방송가를 달굴 듯 하다"라며 "실제로 기획 중이 트로트 예능이 많이 있다"라고 평했다. 뉴트로 콘셉트의 강세를 예능 트렌드로 응답한 관계자는 "'캠핑클럽'과 온라인 탑골 등 여기저기 과거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복기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능계의 최대 사건을 묻는 질문에는 '넷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파문'이 14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

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초 앵트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 프로듀서)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 응답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청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다"라고 평했고, 다른 응답자는 "전국민에게 배신감을, 해당되는 아이돌 연습생들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준 사건이다"라며 "오디션 장르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키웠다"라고 말했다.

설리와 구하라의 비보는 5표를 받았다. 앞서 지난 10월14일 설리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11월24일 이러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하라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는 비통함 빼졌다.

이 외에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제기 파문은 3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도덕성 문제 및 '너무 많이 찍기다 힘들다'란 응답은 2표를 각각 받았다. 또한 버닝썬 사건, 트로트 부흥, 쇼트 폼의 강세 등은 1표씩을 획득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2관	백두산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4관	백두산
5관	캣츠
6관	시동
7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신비아파트 극장판
8관	겨울왕국2, 캣츠 (더빙)눈의 여왕4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백두산, 천문·하늘에 묻는다
2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캣츠, 시동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4관	백두산
5관	시동
6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